

우리나라 공동주택 욕실 공간의 변화추이

— 1966년~1991년 사이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

Changing Trend of Bathroom Space in Apartment Housing

— With the Cases of Small Size Apartment Housing Established in 1966 - 19991 —

沈 賢 淑*
Shim, Hyeon Sook
申 京 珠**
Shin, Kyung Joo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basic data for presenting an appropriate plan of bathroom space which is suitable to our bathing behavior.

We analyzed 1052 of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floor plan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Bathroom space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bath unit type, separated type, deficiency type, over bath unit type, and semiseparated type and there was no separated type in this study.
 2. The bathroom space type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1) Deficiency type was the most popular one in 10 - 15 pyung sized housing. 2) In the size of 16 - 20 pyung housing, deficiency and bath unit type were popular ones. 3) Bath unit type was the most generalized one in 21 - 30 pyung. 4) Bath unit type and over bath unit type were generally equipped in 31 - 34 pyung housing.
 3. The size of bathroom was ranged from 0.7 pyung to 2.0 pyung, and the ratio of it was 7.5 - 12%.
-

* 정회원, 培花女專 專講

** 정회원, 漢陽大 副教授

I. 序 論

1. 研究배경 및 內容

인간의 생활내용은 사회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해져 가고있으며, 주택속에는 이러한 다양한 생활내용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는 국민 GNP가 100\$ 미만으로 주택에 대한 요구가 무척 낮았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개발 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해감에 따라 주택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GNP가 5,0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택과 주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주거에의 기대는 잠자리와 식사장소에 불과했으나 생활수준이 향상된 오늘날은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서 쾌적한 주생활에의 요구가 높아 이에 따라 욕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입욕행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국민의 입욕 및 세발횟수가 급격히 높아져서 10대와 20대는 매일 세발하며 목욕도 일주일에 2~3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주, 정경숙 : 1989, 이영심, 신경주 : 1990). 물론 거주주택 종류와 계절, 연령에 따라 다소 차가 있으나 60년대와 비교할때 그 차이가 현격하며, 이러한 주생활 행위의 변화에 따라 욕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있다.

최근 건축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그 대부분이 욕실이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그 욕실공간의 평면이 우리의 주생활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며 이 의견에 동의하는 학자도 많은 것으로 믿는다. 그 이유는 서울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욕실이 Bath unit형(이하 통합형 욕실로 서술함)으로 정착되어가기 때문이다.

원래 통합형이란 욕실공간속에 변기, 세면기, 욕조가 한공간에 있는 형태로 이는 서구에서 욕

조속에서 몸을 씻으며 샤워로 행구고 나올때에 이용되는 욕실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목욕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담근후 욕조밖(현재는 변기와 욕조사이)에 나와서 몸을 씻고, 앞으로 엎드려 세발하는 입욕법의 경우는 물리적 공간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아파트의 욕실을 보면 거주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공급주체에 의해 공급된 욕실공간에 우리의 주생활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주택평면 주도에 의한 주생활행위의 변화로 사실은 자연스런 생활행위의 일부가 압박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욕실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을 검토하여 보면 거주자의 목욕행위 분석에 관한 논문 (강순주 1989, 신경주·정경숙 1989, 이영심·신경주 1990)과 그 외는 욕실의 디자인 측면을 다룬것(남주경 1976, 건설부 1979, 김성규 1981, 홍진수 1983), 주택평면의 검토에서 일부 욕실 형태를 언급한것(이영수 1978, 임재홍 1981, 박성혜 1985), 주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분석속에서 욕실에서의 주생활을 일부 언급한것(송장복 1975, 이현주 1984, 김동진 1988)등이 있다.

이에 필자는 욕실에서의 주생활 행위의 내용과 방법의 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정착되어있는 욕실공간의 형태를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적합한 욕실평면 보급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파트 욕실공간의 유형을 분류한다.
- 2) 아파트 욕실공간의 평면형태를 연도별·평형별로 분석한다.
- 3) 아파트 욕실공간의 면적비율을 평형 및 욕실유형별로 분석한다.
- 4) 아파트 욕실공간의 주택평면에서의 위치와 창문의 유무를 평형별로 분석한다.

2. 우리나라의 욕실 정착과정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민생활속에 개인생활공간의 일부로 욕실이 정착 된것은 1941년 주택영단에서 건설한 소규모 아파트로 이 아파트중 건평20평, 15평, 10평에만 욕실이 설치된 것이 그 시초이다 (주택공사,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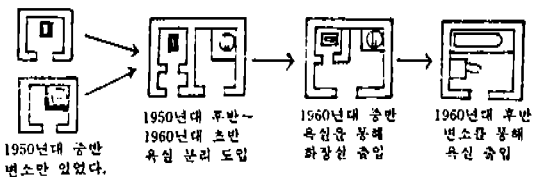
이 최초의 욕실에는 철제 가마솥욕조가 놓여 그 아래서 직접 불을 지펴 물을 데웠다고 한다. 그후 한일합방과 8·15해방을 거치면서 주생활속에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아왔다. 6·25사변이 끝난후 전쟁으로 대량 손실된 주택의 복구책으로 정부는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이때 1950년대 중반까지는 건설 아파트의 대부분이 12평이하의 소규모로 욕실이 없었으며, 그후 5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에서 욕실이 우리생활속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욕실은 물을 태우는 방법때문에 부엌에 인접시켜 부엌에서 출입하도록 되어 변소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60년대 초반에 변소와 욕실이 인접되어 욕실이 변소의 전실(前室)이 되는 형태로 변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이후 변소가 욕실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박춘식, 1986).

그후 욕실평면변화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없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단독주택 욕실평면의 변화에 대한 부분연구가 보일 뿐이다 (이영심·신경주 1990).



〈그림 1〉 욕실 공간의 정착 과정

출처 : 박춘식, 1986을 일부 인용

3. 용어정의

○ 욕실공간 : 욕실공간이란 「인구 및 주택센서스」(경제기획원, 1985)에서는 목욕시설(Bath Room)과 화장실(Toilet)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생에 관계되는 변기, 세면기, 욕조가 있는 공간 및 이에 일부가 있는 곳을 모두 욕실공간으로 정의한다.

II. 研究方法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내 기존아파트의 평면도 분석을 시도했다.

1988년~90년에 걸쳐서 도서실, 아파트공급회사, 서점등을 통해서 서울시내 각종아파트의 평면도를 입수하였다.

입수된 자료는 1966~91년 사이에 분양입주된(예정포함) 서울시소재 20개구이상에 산재하는 각 평형별 아파트 평면으로 건설회사는 60여개사이다.

이중 우선 1차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양면적 7평~34평에 해당) 아파트의 평면 분석을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된 평면은 341개 아파트의 1,054종의 욕실공간으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엄청난 숫자에 해당한다.

III. 結果 및 論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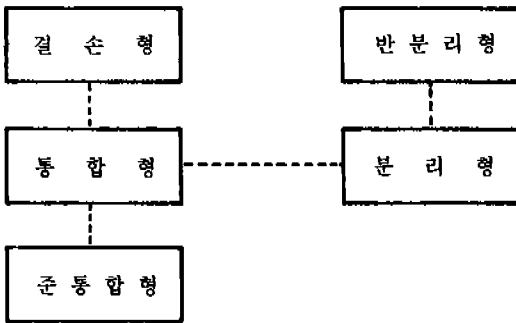
1. 아파트 욕실 공간 평면 형태의 연도별 평형별 분류

1) 욕실 공간 평면의 유형 분류

수집된 1,054개의 욕실 평면을 분석한 결과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아파트의 욕실 형태는 변기만 있는 경우, 변기와 세면기가 있는 경우, 변기와 욕조가 있는 경우, 변기와 욕조가 한 공간에 있고 세면소가 분리된 경우, 변기, 세면기, 욕조가 한 공간에 있는 통합형(Bath unit)의 경우, 통합형과 세면소가 있는 경우, 통합형과 화

장실(변기, 세면기)이 있는 경우, 통합형이 2개가 있는 경우의 8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위의 유형을 참고로 선행 연구와 종합하여(신경주·정경숙) 가능한 우리나라 욕실 공간의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결손형과 준통합형, 반분리형으로 세분되어 결국 아래의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그림 2)



〈그림 2〉 가능한 욕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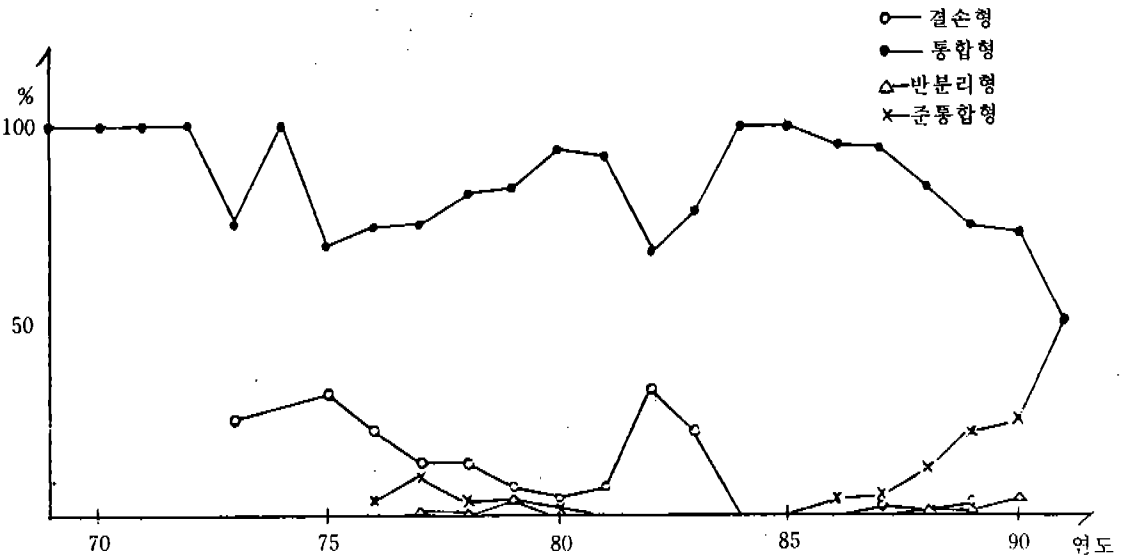
① 통합형 : 욕실 공간 속에 변기, 세면기, 욕조가 함께 있는 경우를 통합형으로 칭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Bath unit라고 불리워지는 욕실 유니트임.

② 분리형 : 변소와 세면소와 욕실이 각각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분리형으로 칭한다.

③ 결손형 : 욕실 공간 속에 변기만 있는 경우, 변기와 세면기만 있는 경우, 변기와 욕조만 있는 경우로 통합형에 비교하여 일부가 없는 경우를 칭한다.

④ 준통합형 : 통합형에 변기와 세면기가 있는 공간이 하나 추가된 것, 통합형에 세면실이 하나 추가된 것, 기존 통합형 외에 통합형이 하나 더 있는것을 칭함.

⑤ 반분리형 : 세면소가 따로 독립되고 변기와 욕조가 한 공간에 있는 경우, 욕조가 분리되고 변기와 세면기가 한 공간에 있는 경우, 변소가 분리되고 욕조와 세면기가 한 공간에 있는 경우를 칭함.



〈그림 3〉 조사대상 아파트 전체 욕실의 연도별 변화 추이

〈표 1〉 조사 대상 아파트 전체 옥실의 연도별 변화

연도	'7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이전	'70	1	2	3	4	5	6	7	8	9	'80	1	2	3	4	5	6	7	8		9	'90	1	
옥실형태																										
결손형	f		1	7	6	8	13	4				2	3	13	13	1	1	2								74
(%)			(25.0)	(30.4)	(22.2)	(13.6)	(13.4)	(8.3)				4.2	7.9	31.7	21.0	1.5	0.9	2.7								
통합형	f	6	2	4	2	3	10	16	20	44	80	40	45	35	28	49	28	23	46	62	102	56	37	6	744	
(%)		100	(100)	(100)	(100)	75	100	69.6	74.1	74.6	82.5	83.3	93.8	92.1	68.3	79.0	100	100	95.895	486.475	72.6	50.0				
반분리형	f											1	1	2									1	1	2	8
(%)												1.7	1.0	4.2									0.9	1.4	3.9	
	f		1	6	3	2	1	2												2	2	14	15	12	6	64
(%)			3.7	10.2	3.1	4.2	2.1					4.2	3.1	11.920	3	23.5	50.0									

2) 옥실평면유형의 연도별 변화

(1) 조사대상 아파트 전체옥실의 경우 위 옥실 공간의 유형 구분에 의해 입수된 아파트 평면 1,054종의 평면 유형의 변화를 연도별로 검토하였다 (표 1,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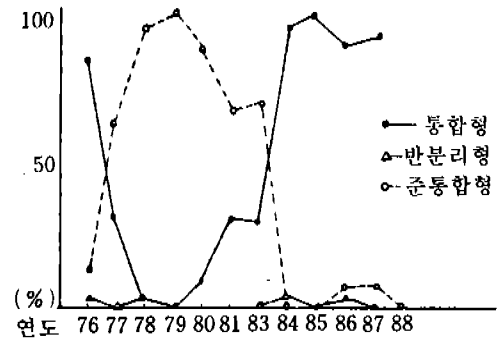
〈표 1〉, 〈그림 3〉을 살펴 보면 1966년에서 1972년까지의 옥실 유형은 전부 통합형이었다. 그 후 1973년에 통합형과 함께 결손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3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유지되었는데, 그중 1975, 1976년과 1982, 1983년에 결손형의 비율이 높아서 평균 30%선을 넘고 있었다.

1976년에는 통합형, 반분리형과 함께 준통합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해인 1977년에는 여기에 반분리형이 추가되어 처음 통합형 옥실에서 시작한 옥실 평면이 극도로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서구에서 옥실을 들여오면서 처음부터 무비판적으로 건설 회사에 의해 공급되어 받아들여지게 된 통합형 옥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유추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 옥실평면에의 요구가 처음 탄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이영심, 신경주, 1990) 1970년대 이전의 옥실 평면을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1976년까지는 압도적으로 통합형이 우세하다가 1977년을 기점으로 통합형과 분리형의 비율이 50%정도의 선에서 교차되어 이 이후부터는 그 곡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분리형이 주류를 이루어서 1979년에는 거의 100%까지 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분리형 옥실은 그 후 1983년까지 근 8년간 꾸준히 유지되다가 다시 통합형 옥실이 우세해 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옥실을 2개 두게됨에 따라 다시 공간 절약형인 통합형이 선호되었다고 유추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1983년에서 1986년 사이에는 결손형이 없어지고 다시 통합형 일변도로 공급되었는데, 이도 역시



〈그림 4〉 1976~1988년 사이의 단독 주택 옥실 유형의 변화 추이

출처: 이영심, 신경주, 한국 생활 과학 연구 제 8 집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번기와 세면기, 혹은 번기와 욕조만 있던 평면에 부족한 일부(욕조 혹은 세면기)가 놓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후 1987년에 다시 결손형이 나타나나 이는 한 건 뿐으로 무시될 수 있으며, 반분리형이 보이면서 준통합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통합형 일실에 불편을 느끼고(동일 시간대에 가족이 이용시 사용 시간이 부딪쳐서 불편) 이를 해결하고자 통합형 외에 사용 가능한 독립된 변소나 세면실을 둠으로서 옥실 공간에 다소의 여유를 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파트 규모별 옥실 유형의 변화추이

① 10평이하 규모 아파트

10평 이하의 아파트는 1975~1983년에 걸쳐 꾸준히 공급되고 있으나, 규모가 극히 작은 관계상 옥실의 유형은 모두가 결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인해 극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중단되다가 1989년에 다시 10평 이하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며, 이때 옥실의 유형은 통합형으로 나타났다. 즉,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결손형(욕조나 세면기가 없는 경우)의 불편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3가지의 위생 공간을 최소한의 공간에 넣는 통합형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공급 추이로는 결손형이 93%를 차지하였다.

〈표 2〉 조사 대상 아파트 옥실의 연도별 변화

평형	연도	'70년 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 계						
			'70	1	2	3	4	5	6	7	8	9	'80	1	2	3	4	5	6	7	8	9	'90	1							
10평 이하	f					3	3	2					4	1															13		
	%					(100)	(100)	(100)					100	100																92.9	
11평	f					1	5	3	4	9	3	2	2	7	9	1	1	2												49	
	%					50.0	100	75.0	57.1	100	75.0	100	100	87.5	100	33.3	16.7	40.0												66.2	
15평	f	4	1	3	1	3	1								1	2	5	3	1											25	
	%	100	50.0	100	25.0	42.9	25.0								12.5	66.7	83.3	60.0	100											33.8	
16평	f					2	1	2	1							1	2	3												12	
	%					40.0	7.7	8.7	14.3							9.1	25.0	37.5												7.7	
20평	f	2	1	1	3	5	12	21	6	6	10	6	5	4	6	15	19	12	9	1									144		
	%	100	100	60.0	100	92.3	91.3	85.7	100	100	90.9	75.0	6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2.3		
21평	f		3	1	2	5	8	7	21	9	12	10	8	19	3	2	8	14	30	12	8	1								183	
	%		100	100	100	100	100	77.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2.3	100	100									98.4	
25평	f					2																							3		
	%					22.2																							1.6		
26평	f		2	1	2	6	6	13	20	3	6	7	4	9	7	5	17	25	31	20	15	3								202	
	%		100	100	100	100	100	95.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6.2	91.2	95.2	88.2	100									96.2	
30평	f																												3		
	%																												1.4		
31평	f							1																					5		
	%							4.8																					2.4		
34평	f		1	1	2	2	9	18	21	22	8	9	16	14	16	15	6	17	8	4	1									189	
	%		100	100	100	100	64.3	85.7	84.0	95.5	100	100	100	100	100	88.2	85.7	63.6	25.0	14.3									75.6		
합계	f					1	1	2																							5
	%					7.1	4.8	8.0																							2.0
합계	f		1	4	2	2	1																								56
	%		100	28.6	9.5	8.0	4.5																								22.4

② 11평~15평 규모 아파트

11~15평형 아파트는 1960년대(1966~1969년) 공급 당시부터 모두 통합형의 욕실 형태로 되어 있다가 1973~1983에 걸쳐서는 결손형과 통합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중 결손형의 공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 처음 욕실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욕실과 변기 사이에서 목욕해야하는 통합형 욕실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1987~1990년 사이에는 결손형 욕실이 적고 통합형 욕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소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욕조가 없는 것보다는 변기와 함께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측면으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규모 아파트는 결손형이 67%로(통합형 34%) 공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16평~20평 규모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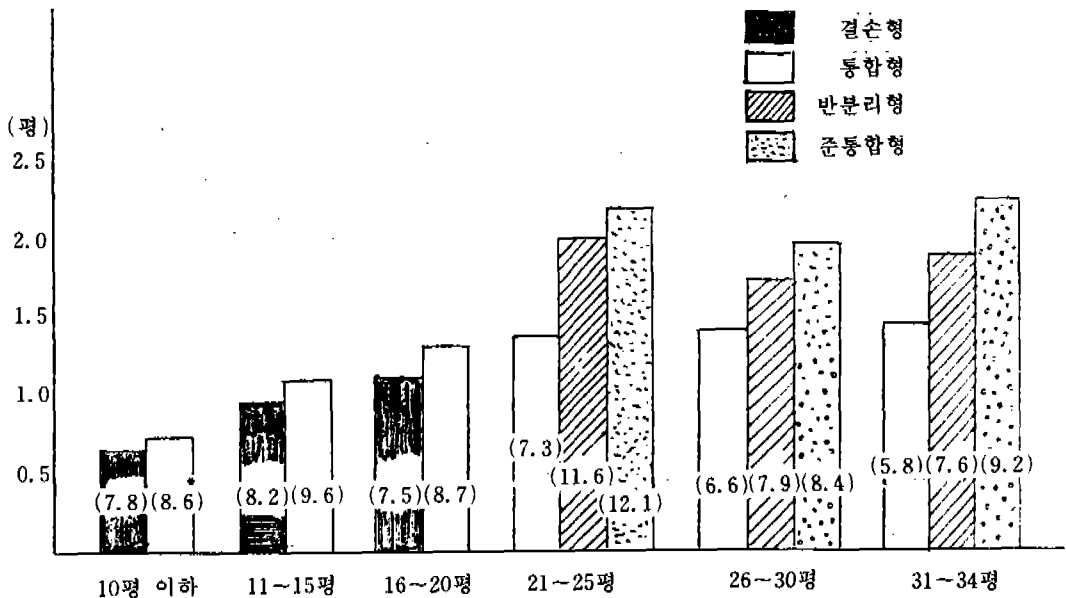
16~20평 아파트는 11~15평과 같이 1960년대 공급 당시부터 전부 통합형으로 공급되다가 다소 늦게 1975~1983년 사이에 결손형이 일부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낮으며, 통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93%).

④ 21평~25평 규모 아파트

21평~25평 아파트는 1960년대는 물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의 모든 연도에 걸쳐 통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77년과 1989년에 일부 준통합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통합형의 사용시간대가 겹쳤을 경우의 불편점 해소책으로 좁은 면적이긴 하지만 변기를 하나 더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26평~30평 규모 아파트

26평~30평 아파트는 21평~25평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는 물론 1970년대, 1980년대, 1990



<그림 5> 아파트 평형별 욕실 면적 및 전용면적에 대한 면적 비율

* () : 욕실 면적 비율 $\frac{\text{욕실면적}}{\text{전용면적}} \times 100$

년의 모든 연도에 걸쳐 대부분이 통합형이나 1978년과 1987, 88년에 준통합형이, 1989, 90년에 반분리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욕실 공간에의 관심 고조에 따라 필요에 의한 통합형의 불편점의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추된다.

⑥ 31평~34평 규모 아파트

31평~34평 아파트는 1972년에 처음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 당시의 욕실은 통합형이었다. 이 면적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초에 걸쳐서 반분리형 및 준통합형의 유형이 일부 나타나다가 다시 중지되고 그 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통합형과 함께 준통합형이 처음 12%에서 시작하여 8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합형에 부부 전용의 화장실(일부 샤워기 포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한곳으로는 부족함이 증명된 것으로, 두 평면의 실태 조사에서도 준통합형에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신경주, 정경숙, 1989).

2. 아파트 욕실 공간 면적 비율의 평형 및 욕실 유형별 분석

아파트 욕실 공간이 주택속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아파트 평면별 전용 면적에 대한 욕실 면적을 %로 산출하여, 아파트 평형 및 욕실 유형별로 도식화하였다(그림 5).

1) 아파트 평형별 욕실 면적 및 그 비율

10평 이하의 경우는 그 면적이 0.7평 내외이며,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7.8~8.6%이었다.

11평~15평의 경우는 그 면적이 1.0평 내외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8.2~9.6%이었다.

16평~20평의 경우는 그 면적이 1.2평 내외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7.5~8.7%이었다.

21평~25평의 경우는 그 면적이 2.0평 내외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7.3~12.1%이었다.

26평~30평의 경우는 그 면적이 1.7평 내외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6.6~8.3%이었다.

31평~34평의 경우는 그 면적이 1.9평 내외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5.8~9%이었다.

즉, 욕실 공간의 면적은 0.7평~2.0평으로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5.8%~12.1% 사이에 아파트 평형에 따라 폭넓게 분포하였으며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욕실공간의 면적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욕실공간의 면적비율은 이영수(1978), 정경숙·신경주(1989)의 연구 보다는 다소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부분 평면에 의한데 비해 본연구는 서울시 소규모 아파트 거의 대부분의 평면을 분석하였으며, 또 대상평면의 건축연도가 본연구의 경우 선행연구보다도 최근의 것이 많이 포함 된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아파트 욕실 유형별 욕실 면적 및 그 비율

결손형의 경우는 그 면적이 0.9평 내외이며,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7.5~8.2%이었다.

통합형의 경우는 그 면적이 0.7평(아파트 면적 10평의 경우)인 하나를 제외하는 거의가 1.3평 내외이며,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5.8~9.6%이었다.

반분리형은 그 면적이 2.9평 내외이며 욕실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7.6~11.6%이었다.

준통합형의 경우는 그 면적이 2.2평 내외이며 욕실 공간의 면적 비율은 8.4~12.1%이었다.

즉 욕실 공간의 욕실 유형별 면적은 결손형이 0.9평 내외로 가장 낮고, 다음이 통합형으로 1.3평 내외이며, 반분리형 1.9평, 준통합형 2.2평 순으로 점차 넓어졌다. 이를 보면 결손형과 통합형 사이에는 그리 큰 면적의 차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통합형으로 하는 것이 주생활상 편리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반분리형과 준통합형 사이에도 그리 큰 면적의 차가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

할 수 있게 공급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욕실 유형별 면적 비율은 통합형의 5.6%의 최저치를 제외하고는 결손형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통합형, 반분리형, 준통합형의 순으로 욕실 유형별 면적과 같은 경향이었다. 일반적인 면적 비율은 7.5~12% 사이로 볼 수 있겠으며, 욕실 공간이 어떠한 형태로든 분리되는 경우에 그 면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3. 아파트 평형별 욕실의 위치 및 창 의 유무

욕실의 위치는 15평을 중심으로 그 이하와 이상의 평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5평 이하의 경우 욕실 위치가 대부분 한 쪽 구석에 위치(68.8%, 47.6%) 하는데 반해 16평 이상의 경우는 대부분이 양 벽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창문 역시 15평 이하인 경우 창문이 있는 욕실의 경우가 많은데 비해 26평 이상에서는 2~3% 정도로 거의 창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욕실에의 더운물 공급이 보일러를 통해서 가능해짐에 따라 욕실이 외부에 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외에는 거주성이 양호한 공간에 거실, 개실 등을 배치하자면 욕실 공간의 위치는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욕실의 위치와 창 의 유무는 욕실 공간의 평면 형태나 면적 비율에는 그리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다음 연구에서는 제외시켜도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IV. 結 論

1966년~199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욕실평면 1,054개를 입수하여 소규모 아파트 욕실공간의 평면 형태의 분석을 하여 이를 통해서 우리생활에 적합한 욕실 평면보급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욕실공간의 유형은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결손형, 준통합형으로 후자는 반분리형으로 각각 그 변형이 있어 결국 5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의 유형은 10평 이하의 결손형, 11평~15평 및 16평~20평은 결손형과 통합형(전자는 결손형 중심, 후자는 통합형 중심), 21평~25평 및 26평~30평은 통합형, 31평~34평은 통합형 및 준통합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었으며, 어느 면적에서도 분리형은 없었다.

3) 각 면적별 아파트 욕실 유형의 연도별 변화에서는 1960~1990년 사이에 욕실에서 주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아무리 소규모아파트라도 결손형의 공급을 지양하며 31평 이상은 위생공간을 분리하여 두 곳에 두는 준통합형으로의 검토가 요망된다.

또 21평~25평은 통합형과 반분리형중, 26평~30평은 통합형과 준통합형중 어느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요망된다.

4) 욕실공간의 면적은 0.7평~2.0평 사이에, 면적비율은 5.8%~12.1% 사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면적이 넓을수록 차지하는 욕실의 면적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5) 욕실유형별 면적비율에서는 유형간에 차가 있었는데 결손형이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이 통합형, 반분리형, 준통합형의 순으로 높아졌다.

일반적인 욕실의 면적비율은 7.5%~12.0% 사이로 볼 수 있었다.

6) 욕실의 위치는 15평이하에서는 대부분 어느 한쪽 구석으로 위치하며 창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16평이상에서는 양쪽 벽면이나 중앙에 위치 하면서 창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욕실의 위치와 창 의 유무는 욕실의 평면 형태나 면적 비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의 계속 연구에서는 제외시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 고 문 헌

1. 강순주, "아파트의 욕실 공간과 입욕 방법과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10.
2. 건설부, "국민 주택의 정정 규모와 부대 복리 시설 기준 연구"
3. 김동진, "주택 단위 공간에 따른 거주자 생활 행위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4. 김 린, "아파트의 실태와 아파트 주민의 주거 의식 및 형태에 관한 연구", 1981.
5. 남수경, "공동주택에서의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6. 대한주택공사, 「조선 주택 영단의 표준 설계도」, 1979.
7. 박성혜, "공동 주택 평면 구성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8. 박춘식, "50년대 이후 단독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9. 송장복, "아파트와 단독 주택 주민의 주거 의식 및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10. 신경주, 정경숙, "한국인의 입욕법 측면에서 본 아파트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소, 1989.
11. 이영수, "아파트 단위 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12. 이영심, 신경주, "한국인을 위한 단독주택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소, 1990.
13. 이현주, "한국 아파트 거주자들의 욕실 공간에 관한 의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4. 이 훈, "아파트의 주거 환경과 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5. 임재홍, "집합주거의 단위 평면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6. 조성기, 김일진, 「주거학」, 동명사, 1983.
17. 홍진수, "우리나라 서민 APT의 BATHROOM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